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아파트 담보대출 시세 90%까지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13/27℃ 목포 14/24℃ 여수 14/21℃

단기 4344년 (음력 4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76호 1판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정부 나눠주기 국책사업에 목매는 지자체

‘구걸 자치’ 언제까지…

지방자치의 강화 없이는 최근 잇따라 빚어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첨예한 경쟁과 입지 선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및 권한을 틀어쥔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시혜적인 국책사업을 내걸고 정작 입지는 정략적으로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 ‘뜻대로’ 지역 발전이 좌우되는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H 사태·과학벨트 전국 사분오열
수도권 집중 패러다임 뜯어 고쳐야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투입되는 5조2000억원은 순수한 연구지원비이며 이외에 부지매입비로 2조원이 추가돼 전체 사업비는 7조원대에 이른다. 광주시의 2011년 본예산이 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으로,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된 대전 대덕특구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인건비·계속사업비 등에 사용하면서 자체 예산으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에 너도나도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전체 예산 중 가용예산은 2000억원 정도로 나머지는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국책사업을 중앙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수도권 위주로 구성한 뒤 입지를 결정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중앙부처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은재호(47)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 등을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을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이 중앙관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배하고 권한을 이양, 지자체를 대등한 파트너로 상정해 국가정책 및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재정·입법 등에서 2할이나 3할 자치에 머물고 있어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돈이 없는 지자체와는 달리 중앙정부는 집중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이란 명목 아래 정치적인 시혜를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구걸 자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31년, 가시지 않은 아픔 5·18 광주민중항쟁 3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인 나점례씨가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아들 김상구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31주년 추모열기 절정

옛 전남도청 앞 전야제…오늘 5·18 민주묘지 총리 등 참석 기념식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는 전국에서 몰려든 참배객들로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추모제와 전야제가 열린 각 행사장에는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관련기사 6·7·12면〉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시민·대학생·외국인 등 5000명이 참석해 5월 정신계승을 다짐했다.

1부(추모)·2부(기억과 관심)·3부(부활과 탄생)로 나뉘어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 300명이 직접 만든 주먹밥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며 80년 5월의 감동을 그대로 재연했다.

전야제는 광주 나빌레라 무용단이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역동적인 무용으로 시작됐으며 뮤지컬 ‘화려한 휴가’ 팀의 ‘광주 나의 사랑’ 합창으로 막이 올랐다. 2부에서는 ‘5월 노랫꾼’과 일본 진보적 음악활동 그룹인 ‘우타고에’ 공연·신명 탈 굿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시립소년·소년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전야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으며, 시민들은 대동놀이인 강강술래를 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5월 정신’의 부활을 기원했다.

본 행사에 앞서 학생·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풍물단은 광주역·조선대학교에서 각각 출발 옛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만나 본 무대인 옛 전남도청 앞까지 굿판을 벌이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등록금 인하 실천’, ‘5월 사진 전시회’ 등 정치·사회·교육·경제문제 등을 담은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치인·대학생·시민 등 500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거행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희생자 제례와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가족 대표 인사말,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들은 5월 영령들의 묘소를 찾아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정부 주요인사·5월 관련단체 회원·시민·학생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인권선언문’ 채택

국제인권네트워크 폐막…인권지수 개발·연대 강화키로

국내외 100여명의 인권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가 ‘광주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17일 폐막됐다. 〈선언문 2면〉

이번 인권 네트워크는 알리자데 UN인권최고대표 특사, 베르너 패트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 파트리샤 개틀링 뉴욕시 인권위원장 등 세계 인권도시 대표단과 UN 인권전문가, 인권관련 시민단체 등 인권을 상징하는 인사 및 도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광주선언문’ 채택을 통해 ▲인권도시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발 ▲구체적인 인권교육과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국내·외 인권도시 연대강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비준 등 5가지 사항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또 도시 내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UN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유네스코 인종차별반대도시 연합 가입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인권네트워크에서 논의된 인권도시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의 참여와 연대, 인권도시 간 교류,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광주시가 국제인권도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인권도시의 전 세계적 발전을 보다 촉진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강운태 광주시장은 폐회사를 통해 “인권도시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적 인권 실현(Globalizing Human Right from Below)’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16일 2개 세션 4개 패널을 통해 인권도시의 사례발표(패널 A·B)와 주제발표(패널 C·D)를 거쳐 인권도시의 경험을 배우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7일에는 패널별로 토론회 결과 보고와 종합토론, 선언문 초안 검토를 거쳐 ‘광주선언문’을 작성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 목포 특강
내일 오후 4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201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2009년 아시아대학평가 '논문당 인용수'국내 '1위'

■일반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강릉캠퍼스

구 분	석사과정 학 과 명 (전공)	박사과정 학 과 명 (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유아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
사 회 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지역개발학과(지역경제학, 지역계획학, 개발행정학), 법학과, 관광학과,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제학과,경영학과(경영학, 회계학), 무역학과, 지역개발학과(지역계획학, 개발행정학), 법학과, 관광학과,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교육학과
자 연 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생 명 과학대학	식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원예학과, 환경조경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원예학과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예 술 체육대학	미술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 생화학및분자생물학 - 치과생체재료학 - 생리학및신경과학 - 약리학 - 미생물학및면역학 - 병리학 - 해부학및조직학 - 치과보철학 - 치주과학 - 예방치학 - 구강악안면외과학 - 소아,청소년치과학 - 구강내과진단학 - 구강악안면방사선학 - 치과보존학 - 치과교정학	치의학과 (좌측 석사과정 모집전공과 동일)
학과간 협 동 과 정	해양바이오산업협동과정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공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환경기술협동과정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환경조경학, 정밀기계공학, 환경응용화학공학, 토목공학)	해양바이오산업협동과정 (좌측 석사과정 모집전공과 동일) 환경기술협동과정 (좌측 석사과정 모집전공과 동일)
학·연 협 동 과 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협동과정 (화학, 생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환경응화학공학과, 토목공학, 치의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협동과정 (좌측 석사과정 모집전공과 동일)
입학정원	123명(37개학과, 3개협동과정)	51명(29개학과, 3개협동과정)
모집인원	※ 45 명 (통계학과,환경조경학과,환경기술협동과정모집선발에서 제외)	※ 11 명 (유아교육과,치의학과,관광학과,체육학과,영어영문학과,식품과학과,토목공학과,해양생물공학과,물리학과,교육학과,국어국문학과만 해당됨)

※ 강릉캠퍼스 석사과정 통계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기술협동과정 모집 및 선발에서 제외
※ 강릉캠퍼스 박사과정 모집인원 11명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 관광학과, 교육학과, 물리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토목공학과, 체육학과, 치의학과만 지원가능
※ 외국인의 경우는 정원외 모집으로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전학과 지원가능
▶ 원주캠퍼스

구 분	석사과정 모집학과	박사과정 모집학과
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음악과	유아교육과
과 학 기술대학	자동차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정보기술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입학정원	20명(9개학과)	3명(3개학과)
모집인원	※ 2 명(간호학과, 음악과만 해당됨)	※0명(모집없음)

※ 원주캠퍼스 석사과정 모집인원 2명은 간호학과, 음악과 만 지원가능
○ 전형일정
1.원서교부 : 2011.5.16(월)~5.26(목) 09 : 00~18 : 00(토요일및공휴일제외)
2.원서접수 : 2011.5.20(금)~5.26(목) 09 : 00~18 : 00(토요일및공휴일제외)
3.원서교부(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접수 장소
가. 강릉캠퍼스 : 본부1층 대학원행정실(전화 640-2959)
나. 원주캠퍼스 : 본관1층 행정실(전화 760-8024)
4.입학시험일시 : 2011.6.11(토) 10 : 00~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캠퍼스	학 과	수여학위	전 공	모집인원
강릉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	15명 (정원외 11명)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	
	지역개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사회개발	
		도시계획학석사	도시관리	
		행정학석사	발전행정	
	산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산업경제, IT산업	
	법률정책학과	법학석사	헌법,민사법,형사법, 기업법,행정법	
	국제비즈니스학과	경제학석사	국제무역,국제경제	
		경영학석사	국제경영	
	관광학과	관광학석사	관광학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석사	전자상거래	
	국제통상학과	경제학석사	국제통상학	
	안보국방정책학과	국방정책학석사	국방정책학	
원주	국방정보학과	국방정책학석사	국방정보학	9명 (정원외 5명)
	국제무역통상학과	경영학석사	국제무역통상학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	

○ 전형일정
1.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
-2011.5.23(월)~6.3(금)(평일09:00~18:00 까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033-640-2163)
-원주캠퍼스 본관1층 행정실(☎033-760-8024)
2.수험표 교부 : 2011.6.10(금) 15:30
3.면접시험 : 2011.6.10(금) 16:00 해당학과 지정장소
4.합격자 발표 : 2011.6.22(수) 강릉원주대학교홈페이지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캠퍼스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강릉	교육학과 (16개전공)	*교육학,교육행정,*유아교육,국어교육,영어교육,중국어교육,윤리교육,철학교육,역사교육,수학교육,물리교육,화학교육,생물교육,영양교육,미술교육,체육교육	45명
원주	교육학과 (3개전공)	*유아교육,컴퓨터교육,음악교육	8명

※ 위의 「*」 표기 전공은 현직 교직원 및 해당전공 표시 교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전형일정
1.원서접수 : 2011.5.23(월)~5.26(목) 18:00까지
2.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gse.gwnu.ac.kr)
3.서류제출 : 2011.5.23(월)~5.26(목) 18:00까지
4.시험일시
-특별전형 : 2011.6.11(토) 10:00~
-일반전형 : 2011.6.18(토)
·필기고사 : 13:30~14:30
·면접고사 : 15:00~

■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캠퍼스	학 과	모 집 인 원
강릉	재료공학과,산업공학과,환경응용화학공학과,토목공학과,신소재공학과,원예학과,식품과학과,해양생명공학과,*환경조경학과,산업미술학과	1. 모집인원 : 12명 * 환경조경학과 제외 2. 군위탁생은 별도정원 (육군 8명, 공군 8명) *해양생명공학과는 전공별 모집 (양식/생물과학/해양생물공학) *산업미술학과의 주 분야는 요업, 텍스타일, 도시환경디자인
원주	정보기술공학과,기계의용공학과,자동차공학과,전기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컴퓨터공학과,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기술경영학과,전자공학과,바이오에너지공학과,녹색사회기반시설공학과,*조경학과	1. 모집인원 : 6명 * 조경학과 제외 * 모집인원수보다 지원학과수가 많은 경우 일부 학과 지원자는 불합격할 수 있음 2. 군위탁생은 별도정원(육군 4명, 공군 4명)

○ 전형일정
1.원서교부 : 2011.5.23(월)~6.3(금)(평일09:00~18:00)
2.원서접수 : 모집학과와 무관 택1
-강릉 : 본부1층 산업대학원행정실(☎ 033-640-2085)
-원주 : 본관1층 행정실(☎033-760-8024)
3.면접시험
-일시 : 2011.6.14(화) 14:00~
-장소 : 해당학과 지정장소
4.합격자 발표 : 2011.6.22(수)예정 강릉원주대학교홈페이지